

# 5·18 투사회보 만들던 청년 박용준

### 극단 토박이 '광천동 청년 용준씨' 15·16일 민들레소극장서 연극 들불야학 활동했던 열사 조형 만드는 과정 인형 등 오브제로 구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은 저항언론 '투사회보'를 제작해 흑색선전에 맞섰다.

이들은 광주 광천동 시민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등사기를 구비, 전용호·윤상원 열사가 글을 쓰면 박용준 열사가 같은 내용의 글을 자필로 적어 시민들에게 잠상을 알렸다.

지금처럼 대량 인쇄가 가능한 시기가 아니었던 터라 일일이 등사기로 찍어내는 노고가 있었지만, '투사회보'는 민주화운동 지도부의 계획, 구호, 행동 지침을 전달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극단 토박이(대표 임해정)가 연극 '광천동 청년 용준씨'를 오는 15일(오후 7시 30분), 16일(오후 3시) 민들레소극장에서 펼친다. 오월 휴먼시리즈 일환으로 선보이는 첫 작품이며 5월 민중항쟁 당시 투사회보를 만들었던 스물다섯 고아 청년 박용준의 이야기를 다뤘다. 연출에 박정운.

1978년 들불야학 단합대회... 상원, 용준, 영철 등은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용준은 영어원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영삼이가 자신들과 어울려 기쁨을 느낀다.

용준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신협 교도원으로 취직하지만 잠잘 곳이 없어 고통을 겪는다. 영철은 그런 용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가족처럼 대하는 등, 야학생들은 서로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영삼의 결혼 소식과 1980년의 비극이 드리우면서 평화는 깨진다. 80년 오월 광주, 모든 언론이 시민들의 민중항쟁을 '불순분자들의 소요 사태'라 호도할 때 용준은 뾰족한 쇠철필로 참혹한 역사를 새기기 시작한다.

극은 들불야학 강학들이 녹두서점에 모여 투쟁의 열기를 끌어올렸던 모습, '투사회보'를 제작하기 위해 광천동 지역민의 도움을 받았던 모습을 초점화한다.



극단 토박이가 오월극 '광천동 청년 용준씨'를 오는 15~16일 민들레소극장에서 펼친다. 용준역 배우가 동료들과 포옹하는 모습. <토박이 제공>

'투사회보'는 1980년 5월 21일 제1호를 배포한 뒤 같은 달 25일 제8호를 발행하기까지 일 평균 7~8000장을 찍어낼 정도로 방대한 양을 자랑한다. 1~10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형, 미니야학, 가면 등 다양한 오브제를 통해 구현할 예정이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광주YWCA를 공격하면서 박용준이 사살된 장면, 투사회보 이름을 '민주시민회보'로 바꿔 10호까지 발간한 뒤 계엄군에게 전량 압수당한 대목 등도 극화된다.

수천 장의 투사회보를 써 내려가며 용준의 손은 통통 부었고 살갗이 벗겨졌지만, 진실을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제작을 계속하는 모습은 울림을 남긴다. 스물다섯 살 주인공 내면을 드러내는 분신(그림자)을 활용해 상처, 갈등, 희망 등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점도 포인트다.

박용준 역에 김영택, 용준의 그림자 역에 고영욱 배우가 출연한다. 이외 김정훈(김영철 역 외), 박정운(윤상원 역 외), 임해정(김영철 아내 역 외),

박지형(영삼이 역 외) 배우 등도 무대에 오른다.

임해정 대표는 "이번 '광천동 청년 용준씨'와 같은 오월연극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상연되기 위해서는 '관객'의 존재가 필수적이다"며 "오월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담 갖지 말고 편안히 찾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시간을 재구성하거나 의도하는 바를 '확장'시키는 다채로운 오브제 활용은 주제의식을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3년 창단한 극단 토박이는 오월 레퍼토리 기획공연으로 '금희의 오월', '모란꽃', '형실홍살', '마중' 등을 선보여 왔다. 이외 '박효선 연극상'을 제정하고 오월 시대 정신을 담은 작품을 발굴하는가 하면,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굿 스테이지 페스티벌'로 관객들을 만났다.

사전 예약제.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다큐·실험영화의 경계 다시 그린다

ACC, 14일 'ACC 필름 & 비디오 포럼-ACC' 개최

'비제도적 영화들의 제도적 실천', '트랜스 아시아를 새롭게 매핑하다', '동시대적 기획이 지역의 관객들과 만나는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영화와 관련된 포럼을 14일(오전 10시) 문화정보원 B3 극장3에서 연다.

'ACC 필름 & 비디오 포럼-ACC'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포럼은 모두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을 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확장 영화의 실천을 의미하는 '익스팬디드'에 초점을 맞췄다. 영화 형식의 실험을 지향하는 다큐와 실험영화 경계를 다시 그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광희 학예연구사는 "오늘날 영화의 확장된 감각인 익스팬디드를 분석하는 한편 일상에서 마주하는 무빙 이미지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아시아 영화 예술의 현재를 새롭게 사유하고 영화 내일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다"라고 전했다.

먼저 김지하 ACC 학예연구관이 '비제도적 영화들의 제도적 실천'을 발표한다. 이어 김소영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연구소장이 '트랜스 아시아

를 새롭게 매핑하다'를, 유운성 영화평론가가 '동시대적 기획이 지역의 관객들과 만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신은실 영화평론가는 'ACC의 영화 연구와 실천에 부치는 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객빈 예술매체학자는 '(탈)압축된 전통의 기억과 정신, 또는 (재)창안'을, 서현석 작가는 '탈-확장영화의 확장성, 혹은 '다(차)원'적 상상의 영화적 환원'을 이야기한다.

이어 김지하 영화미디어학자의 '1990년대 이후 영화와 무빙 이미지의 전사', 김은희 큐레이터의 '블랙 박스와 화이트 큐브 사이'가 예정돼 있다.

토론 내용은 자료집과 ACC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내년 10주년을 기념 '실험영화 랩' 전시의 콘텐츠로도 각색될 계획이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이번 포럼은 내년 10주년을 앞두고 영화 실험 및 가치를 탐색하고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화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의미있는 포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월출산 양곡 저장창고서 '락 스피릿~'

영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콘서트, 9일 옛 대동공장



'내 귀에 도청장치' 멤버들. <영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제공>

"눈으로 들어갈게 아프지 않게/ 내 앞을 막는다면 콧속을 달리면 돼"(내 귀에 도청장치 'Magic Man' 중에서)

영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센터장 김창현)가 '월출산 아래 콘서트-내 귀에 도청장치'를 오는 9일 오후 3시 영암읍 옛 대동공장(화문리 195-5)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영암읍 공동화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한 '월출산 아래 콘서트' 일환으로 마련된다. 양곡 저장창고로 활용되던 폐산업 시설을 리모델링해 일일 록 공연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내 귀에 도청장치'는 보컬 이진표, 기타 박상욱을 비롯해 김우진(베이스), 서호덕(드럼)으로 구성된 4인조 록밴드다. 2001년 1집 'Wiretap In My Ear'로 데뷔했으며 제3회 올레뮤직 인디어워

드 이달의 아티스트, 제4회 흥대앞 문화예술상 대한민국 라이브 뮤지컬페스티벌상을 수상했다.

공연은 정경화의 1996년 작 '나에게로의 초대'부터 'U hoo hoo' 등으로 채워진다. 이어 박성신의 '한번만 더', 신해철 10주년을 맞아 '그대에게'도 들려준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래 'erotopathy', 'Party'로 강렬한 록 사운드를 선사한다. 윤도현, 장근석 등과 함께 불러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 '헤드워' 속 'Angry inch'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외 허무한 삶과 축제를 모래바람이 지나간 사막에 은유한 '축제'가 울려 퍼진다.

김창현 센터장은 "지금까지 1000여 명 관객을 동원한 '월출산 콘서트'가 앞으로도 영암읍에 젊은 기운을 불어 넣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영호남 누정 문화' 콘텐츠 가능성 모색

호남학연구원·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 성료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누정은 은거와 강학, 교유, 힐링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선비들은 누정에서 자연과 벗하거나 후학들을 가르쳤다. 더러는 학문적 교류를 하거나 시문을 짓고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영호남 누정 문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화 가능성을 모색한 학술대회가 성료됐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은 최근 경

북대 영남문화연구원(원장 이영호)과 영호남의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0번째 학술대회가 치러진 이번 대회의 주제는 '영호남의 누정'.

1부에서 정태열 경북대 교수가 '해행총재'를 모티브로 조선시대 누정의 특징을 조망했다.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연구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난 영남 누정 현황을, 김경호 전남대 교수는

고산 매학정과 율곡의 관계성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이강수 이원문화연구소 연구원이 식영정 원림에 대한 총론 및 유산 가치를 발표했다. 권영호 창신대 교수는 경북 누정을 매개로 누정문화의 콘텐츠 활용 방향을 풀어냈으며 이은정 전남대 박사과정생은 누정문화의 탐방과 AI 챗봇의 활용을 이야기했다.

한편 정명중 호남학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영호남의 누정을 토대로 콘텐츠화 가능성, 디지털화의 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누정 외에도 다양한 문화자산을 매개로 학문적 교류와 탐색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